

□ 신녕면

*가천리

가산골, 가시골은 약 200여년전에 도구동(都九東)이라는 선비가 개척했으며 마을 뒤 야산이 아름답고 모래가 많았다하여 지은 이름이라 하며, 또 마을의 산모양이 마치 가사(袞婆)를 등에 걸고 있는 형상이라 하여 지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새터는 명천(鳴泉)이라고도 하며 이원홍(李元紅)이라는 선비가 200여년전 개척했다 한다. 작은 가사골은 약 200여년전에 김주원이라는 선비가 개척했다. 큰 가사골은 약210여년전 정구본(都九本)이란 선비가 개척당시에 모래가 많았고 마을 뒤 야산이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어 가사(佳沙)골이라 칭하고 있다하여 1914년 이근복(李根福)이라는 선비가 가사골 "佳"자와 명천 "泉"자를 따서 이 마을 이름을 가천이라 개칭하였다고 한다.

*매양리

매양리는 별삼(別三), 별사(別四), 별오(別五), 어일(於逸), 별십일(別十一)의 일부와 別二의 일부가 모여서 된 마을이다. 1914년 행정구역 변경시 이와 같이 칭하게 되었다. 별관(別館) : 왕산리(旺山里)의 일부와 매양리(梅陽里) 일부를 합하여 부르는 이름이며 약1300년전 밀양 박씨가 1리 부근에, 또 경주 김씨가 왕산 2리 부근에 각각 마을을 이루었다 한다. 또 조선시대에는 근처에 장수역(長水驛)이 있었다. 慶尙左道의 동쪽 큰길에는 큰 역이 있었다. 보도말거리 : 옛날 들의 곡식을 지키던 막(幕)이 있었으며 그 주위를 통틀어 보도말거리라 했으며 약 40여년 전까지도 막이 있었다. 서마실, 섬마실 : 양변에 강이 있었기에 지은 이름이며 사동(四洞)은 별관안에서 서쪽으로 위치한 마을로서 아주 옛날에 경주 김씨가 개척했다 하며 별관은 당시 別一里에서 別五里사이 넷째이기에 불린 이름이며 어름, 어리골, 어일은 別四里 서쪽에 있는 마을로 산의 골짜기가 깊고 길어 피난에 좋은 곳이기에 칭하게 되었다.

*부산리

지금부터 약 70년전까지만 하여도 부산에서 서울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역과 역 사이를 공용으로 여행하는 관원들의 여관인 원(院)이 있었고 산의 남쪽에 있는 원(院)집이라하여 남원(南院)이라고 하였다. 300여년전 청송에서 함안 조씨들이 이주해 왔다. 배골(梨洞) : 약 300여년전에 청주 고씨가 개척한 마을이며 당시에는 배나무가 많았다 한다. 새터(新基) : 약 400여년전 달성 배씨가 새로 개척했다 한다. 경주 김씨가 주성을 이루며 약 60여 가구가 산다. 새뚝은 1930년대의 대홍수로 인하여 주막거리와 사기점이 유실되어 그 곳으로 이주하여 개척한 마을이다. 핏골 : 남원리 동남방 부흥산 뒤편 골짜기인데 약400여년전 경주 이씨가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임진시에는 피난지이고 부흥산이 있기에 1914년 행정구역 개편시 부산리라 했다 한다.

*연정리

두야(豆也) : 신양 소척(新陽 小斥)으로 된 마을으로서 약 470년전에 윤준(尹俊)이라는 마을의 선비가 개척했다고 하며 콩이 잘 되고 지형이 "也"자 모양이라서 두야골(豆也谷)이라고 했다한다. 아랫갱변 : 신기(新基)는 윤상호라는 선비가 1875년에 개척했다 한다, 옷바렌내 : 아랫바린내 위쪽에 위치한 마을로서 물이 바르게 내려간다는 뜻에서 생긴 이름이라 한다. 참나무장이 아래실 : 아랫마을은 참나무, 亭子木이 있었다 한다. 지금은 20평 정도의 느티나무 숲이 있다. 윗마을 단실의 북쪽에 있다.

*완전리

화암 잔부(火岩 殘部)와 下一, 下二, 下三이 합해서 된 마을이며 하관(下官)이라 한다. 신라시대 월성 손씨(月城 孫氏)가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구전되나 시대는 훨씬 후인것 같다. 통행인들을 보호, 지도, 검문등을 했으며 현의 관용창고가 있었다. 낮은 벼슬아치들이 주거 했기에 下官이라 한다. 구디터, 군인터, 구둔터는 조선초기 군인들이 있었다 하여 군인터라 전하기도 하며 또는 9마리의 돼지가 죽을 먹는 형상이기에 구둔(九豚)터라고 한다. 마을 앞에 왕골밭이 많다고 하여 완전(莞田)이라 한다.

*왕산리

별관(別館)이라고도 한다.약200년전에 왕산(旺山)으로 개편했으며 전설에 산이 날아와 앉았다하여 왕산이라 하게 되었다 한다. 화성리에는 고을 수령이 주재하는 관청의 본관이 있고 현재 왕산리에는 하급관리 및 역졸들이 묵는 집이 있어 불려진 이름이라 한다. 만전(萬田)은 뒷산에 철이 많이 난다고 하며 은점(銀店)은 은광이 있었던 곳이고, 주막거리는 옛날에 시장이 있었던 곳이며 부산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다. 주막거리를 대장간, 성기장(눅그릇 만드는곳)골목이라 한다.

*치산리

지금부터 약300년전 "김한윤"이라는 선비가 개척하여 신암(新岩)이라 하였다가 그 후 70년후에 치산(雉山)이라고 개칭하였다 한다. 마을 입구 앞산에 평이 옆드려 있는 모양으로 되었기에 이런 이름이 생겼다한다. 신지냄이, 신암은 신선한 바위가 많기에 붙인 이름이며 진곡(晉谷)은 골 중앙에 위치 하였기에 생긴 이름이며 개척당시 부터 계곡(溪谷)이 긴 산중턱에 마을이 생겼다. 中里는 마을 중심지이고 양지는 동쪽을 보고 양지 바른곳에 자리잡고 있다하여 생긴 이름이며 구천(龜川)이란 예부터 개울에 자라가 많기에 생긴 이름이다. 동지(東池)는 약 300여년전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 개척했으며 동쪽에 못이 있다. 구천은 내포라고도 하며 약 350년 前 안동 권씨(安東 權氏)가 살았으나 지금은 모두 갑현(甲峴)으로 이주했다 한다.

*화남리

갑티(甲峴里) : 330여년전 안동 권씨(安東 權氏)들이 귀천(龜川)인 치산(雉山)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다한다. 지금도 자손이 살고있다. 두들(頭野里) : 약 100년전에 갑현(甲峴)사람들이 이주해 와 농사를 지었으며 지금도 살아 오고 있으나 중앙선 철도와 영천-의성간 도로가 마을 중앙을 통과 하고 있으니 지금은 세가구만 남았다. 딸골(地谷) : 온천리 부근에 서쪽으로 4km떨어진 마을이다. 임란때 義城 金氏, 武安朴氏등이 피난와서 살던 곳이다. 지금은 거의 폐동(廢洞)단계에 있다. 면천(勉川) : 400여년전 경주 손씨가 개척했다 하며 냇물이 마을 앞을 지나다가 굽이쳐 흐른다. 마을 위에 남지(南池)가 있다. 무덤실(武岩) : 300여년전 청주한씨(淸州 韓氏)가 개척한 마을이며 고려장이 4곳이나 있다. 불당골(佛堂) : 古刹이 있었다. 고려말 폐사(廢寺)되었으며 조선말 의병들의 집합지였으므로 日軍들이 폐동을 시켜 버렸다. 광복후 1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온내골 : 의성 김씨(義城 金氏)가 개척하여 안동 권씨(安東 權氏)가 300여년간 살고 있다. 아랫동 : 무암(武岩)아래에 있으며 광복전 과원개발(菓園開發)로 인하여 소재지 사람들이 이주해 살고 있다.

*화서리

화정(花亭), 도근(道斤) 그리고 군위군 산성면 범박리 일부와 반내리(反內里)일부가 합하여 된 마을이다. 도근(道斤) : 임진왜란 당시에 성주 이씨들이 난을 피하기 위해 들어온 마을이라 한다. 화정(華亭) : 400여년전 이형곤이라는 선비가 지금의 마을보다 북쪽인 현 화곡지(花谷池)밑에 살기 시작하였으며 임란시 인동장씨들이 북쪽 골짜기로 들어가 난을 피한 후 현재의 마을로 내려

와 경주 이씨들과 같이 개척했다 한다. 진달래가 많기에 화정(花亭)이라 했다가 화산(華山)의 서쪽에 위치하기에 화서리라 했다한다.

*** 화성리**

관기리(官基里), 관근리(管近里) : 고을 원님이 집무한 곳이며 현의 심장부이다. 800여년전 월성 이씨가 개척했다한다. 교리(조동이라고 함) : 관기리의 북쪽이다. 향교가 있기에 지은 이름이다. 본관(本官) : 화성 전체를 칭하는 이름 성저리(城底里) : 마을뒤 산줄기에 성이 있고 그 성 아래 자리잡은 마을이며 지금도 성터가 보인다. 점막리(店幕里) : 3, 4동 일부와 시장 일대 점포가 많았다. 류정리(柳亭里) : 경주 김씨가 개척했다 한다. 사천변(沙川邊)에 수양버드나무가 많다. 관기, 교리, 성저, 화암일부와 류정(柳亭)으로 되었다.